

제12강 정치철학적 의미에서의 공간(1)

(1교시)

▷ 추상적인 공간 (인간의 도시화, 삶의 도시화)

* 타자(他者)의 개념

- 시대의 변천에 따른 학문적 어휘의 변화
- 20세기 서구 철학의 영향 : 자유, 존재, 공간 등의 어휘가 등장
- 푸코의 영향 : 담론, 계보학, 타자, 권력 등 (80년대가 마르크스의 시대였다면, 90년대는 푸코의 시대)

사진21 미셸 푸코

→ 푸코의 사유=타자의 사유, **뱅상 데콩브 『동일자와 타자(le meme et l'autre)』**

(→ ‘지배자는 차이가 있는 곳에서 그 어떤 대답도 보지 않는다. 지배자는 다르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러한 만족은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실존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다. 그러나 노예는 기본적으로 종속적이다.’

---p.202)

⇒ 기득권층의 존재들인 ‘동일자’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‘타자’란, 기득권자가 아닌, 억압을 받는 존재들을 일컫는다. (cf, 들뢰즈의 ‘소수자(minority)’))

* 20세기 서구 철학에서의 공간론

- 푸코
- ① “19세기 이후, 서양의 모든 철학들은 시간을 너무 편애해 왔다.”
- ② 지식(savoir)과 공간의 관계
- ③ 계보학 : 언표적 공간과 기계적 공간(물리 공간)이 맺는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가. (→역동적인 **디아그램(diagram)**의 개념. 푸코와 들뢰즈, 가타리가 공유하는 부분.)
- 레비 스트로스, 『야생의 사고』를 통해 역사를 특권시하는 칸트 이후의 철학 풍토에 대해 비판. 공간 속에 놓여있는 다양한 인간 사회를 인정.

(2교시)

* 공간의 계보학

- 유사 이래, 이 사회를 떠받쳐온 ‘언어 공간’, ‘사회 공간’, 실제 ‘물리 공간’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연결.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.

* 국가와 시민사회

- 헤겔 : 이성, 하나의 세계인 ‘국가’와 욕망, 복수성의 세계인 ‘시민사회’를 엄격히 구분.
- 전통사회에서는 국가와 백성만이 존재. 즉, ‘사회’란 ‘개인주의’를 전제, 개개인의 주체들을 인정하는 근대적 어휘이다.
- 여기서 주체란,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. 따라서 **구조주의**는 근대 사회의 구조를 극복하게 해 주는, 사상사의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.